

# “내년 경제정책 방향, 선도형 대전환”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재정 정책 수단 총동원  
민생경제 확실한 반등  
공정경제 3법, 기업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2021년 경제 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개최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성과를 언급하며 자긍심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다. ‘K-방역’의 역할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

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며 “소상공인·자유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다”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 사전계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상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 ‘경북 기도원 관련’ 익산서 11명 코로나19 확진

**지난 7~11일 경산 A기도원 부흥회에 개별 혹은 단체로 참석  
김제 가나안요양원 관련 추가 확진자도... 누적 확진 총 75명**

김제 가나안요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이어, 익산에서도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1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19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21명으로 늘었다.

전날 밤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603번(순창 5번)은 전북 597번(순창 4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604번(전주 160번)은 전주 새소망교회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새소망교회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전북 605~613번, 617번(익산 137번)은 모두 익산의 B교회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익산시 B교회 소속으로, 지난 7일~11일 사이 경북 경산시 A 기도원 부흥회에 개별 또는 단체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목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16일 오후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익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음날 순진 전북 593번 80대 말기 암 환자도 이 교회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건당국은 이 교회 소속 교인 관련 27명의 전수검사를 마쳤다.

전북 614번(익산 135번), 615번(익산

136번)은 전북 429번(익산 113번)의 접촉자들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616번(김제 71번)과 619번(전주 162번)은 김제 가나안요양원 관련 확진자로 17일 오전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다.

가나안요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75명에 이른다.

전북 618번(전주 161번)은 지난 13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506번(전주 149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620번(전주 163번)과 621번(전주 164번)은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입국 사례로 파악됐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분석 등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과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책임관 신설

**두세훈 도의원 발의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전북도의회 두세훈 도의원이 발의한 ‘전북도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77회 회의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조례 시행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전북도청년기본조례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북도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신설된 내용을 보면, 첫째 전북도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해 청년정책업무 담당 소관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5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전북도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하고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우수상'

전북도의회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7일 진행된 경진대회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의회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에 대한 현장발표심사(30%)로, 전북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도의회가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를 주제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의 원인규명 조사활동 및 결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자치역량강화, 제도 개선의 성과 등을 달성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게 평가받았으며 심사평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형 뉴딜 추진, 준비·의지 부족”

**박용근 도의원, 지역 혁신 네트워크포럼 정책세미나서**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의원이 17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한 준비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은 “균형발전과 전북지역 뉴딜”이란 주제로 토론자로 나서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2021년 국가예산 중 뉴딜관련 예산은 21조인데, 이중 전북은 120여

개 3,807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찾혀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이 세워지고, 지속적인 투자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치권과 적극 연계하고, 부족한 국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뉴딜펀드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전북도에는 관련 기업 및 인재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고, 그린뉴딜 관련 기업 역시 부족하다”며 “타 시·도와 연계한 ‘초광역적 뉴딜사업 구상’ 등 다각적인 전략 구상”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현장 중심 정책 국감 이행에 ‘충실’**

**민주 이원택 의원  
20년 된 농어업  
재해보험 재설계 등  
문제 해결방안까지 제시**

**지급추진 ▲ 20년 된 농어업 재해보험 재설계 ▲ 밀·콩 식량자급을 제고 ▲ 기후위기 대응 배수개신사업 추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농어업에 접목시키는 방안 모색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 ▲청년 어업인 어선임대사업 도입 ▲한빛원전 은폐수 피해 재조사 촉구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국감을 충실히 이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0년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위원으로 선정됐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준비된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원택 의원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한농연’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올해 3번째 수상이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과정을 정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고, 올해로 22년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해피해 도복부 전량수매 및 재해보험

## 농업 전문가 면모 여실히 보여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  
자금 조성 등 문제점 지적**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위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민복상은 22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평가 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모니터링과 보도자료,질서,언론성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수여하는 상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자금 조성 ▲불법 동물장묘업체 등 민력돌봄 정책의 문제점 ▲코로나



19로 인한 말산업의 붕괴와 불법사설경마 증가 ▲산림동맥임도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농업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세계 최초로 만든 선박용 e비계이션의 보급 저조 ▲잔존유 확인 작업 중 발생한 기름유출·인명사고 사건에서 드러난 해양환경공단과 해양경찰의 문제점 ▲항만공사들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등을 지적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성도 갖춘 농어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농림수산업부 장관을 지난 새삼으로서 무너져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어업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다음주 백신 2개사와 추가계약 할 것”

**민주 김성주 의원 “수급, 시기와 양 걱정할 상황 아냐”**

더불어민주당 국안국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7일 백신 공급과 관련해 “다음주 2개 회사와 추가계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통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난”이라며 충

분한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44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국제백신연합을 통해 1000만명 분은 국가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기업들과 계약을 추진한다”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을 마쳤고 빠르게 다음 주 나머지 2개 회사와 추가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백신 수급에서도 그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조상중 정읍시의장,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이 지난 16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발의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음=김대환 기자

